

중동 평화 찾아오나... 물밑 휴전 협상 개시

이스라엘 언론 '미국·아랍국, 이란과 '전체 전선서 휴전' 비밀회담' 이란 외무 사우디행...바이든-네타냐후, 이란 재보복 '불협화음'

미국과 아랍국가들이 중동 지역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비밀 회담을 시작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자국 채널12 방송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채널12는 이스라엘이 현재 이 회담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현재 힘을 가진 자리에 있다.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너머로 (헤즈볼라를) 철수시키고 국경 근처 지역의 모든 헤즈볼라 군사기지를 해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휴전이 우리측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물밑 협상 소식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중동이 확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최근 자국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탄도 미사일 발사에 맞서 이란 석유시설 공습 등 재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벌이는 전쟁이 지난 7일로 1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전선을 확대해 지상전까지 벌이고 이란이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 지원을 공언하면서 역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헤즈볼라, 하마스와 함께 자칭 '저항의 축'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세력) 일원인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유엔은 긴장 완화를 위해 이스라엘에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일축하며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미국 등 서방이 최근 제시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3주 휴전안도 표류하고 있다.

헤즈볼라 2인자(사무차장) 나임 카셈은 이날 연설에서 "베리(레바논 의회 의장)가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끄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없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헤즈볼라의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휴전 협상에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파스 아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8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순방에 들어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아라치 장관은 출국을 앞두고 취재진에 "이란 출장의 목적은 중동 상황을 협의하고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범죄를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치 장관은 사우디에 이어 주변국을 추가로 찾은 예정이지만 사우디 외 방문국이 어디인지, 순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채널12는 미국·아랍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이 가자지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관측했다.

이스라엘은 인질 협상 이후에도 하마스와 계속 싸우기를 원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 다른 전선보다 복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도심에서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와 플래카드 등을 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이날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연합뉴스

하마스 정치국의 대변인 아이만 사나는 "어떤 합의든 완전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그 전에 포로 교환 협상에 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할 준비가 돼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 탓에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요야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미국을 방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려던 계획을 전격 연기했다.

사브리나 심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방부에 알아보고 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기 전까지 방미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갈란트 장관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오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 규모를 놓고 두 정상이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수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칫 전면전 촉발 등 사태를 악화할 수 있는 과도한 보복의 자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움직이는 것 다 쏜다”...이스라엘, 대피하는 가자주민 공격 논란

북부 집중공격 재개에 민간인 잇단 피해...“드론 발포에 밖으로 못 나가”

가자전쟁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에 따라 인도주의 구역으로 떠나는 이들이 참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주민 모하마드 술탄(28)은 CNN에 폭격 때문에 집을 떠났다가 식량과 물, 담요를 가져다 돌아왔을 때 자신과 다른 민간인들이 총격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드론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격격하고 있었다”며 “내 눈앞에서 세 명이 총에 맞았다. 어린 소녀가 목에 총을 맞았고 소녀의 아버지도 다쳤다”

고 말했다.

술탄이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 반쯤 파괴된 건물과 잔해로 둘러싸인 모랫길을 따라 주민들이 걷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자전거나 삼륜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상에서 사람들은 드론 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소리가 들리자 비명을 지르고 대피하려 했다.

촬영하던 술탄이 “총에 맞았다”고 외치고 그를 향해 다친 남성이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한 소녀가 피에 젖은 붕대로 목을 감싼 채 구급차에 앉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타프 하마드(58)는 지난 6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조카 하산의 유해를 찾고 싶지만, 총격과 포격이 이어지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

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총격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노린다”라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 모하마드 이브라힘은 전쟁 초기보다 최근 포격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그는 집 밖의 폭발이 너무 격렬해서 몸이 흔들릴 정도였으며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석기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양심도, 인간성도, 인권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로켓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엑스(X-엡 트위터)를 통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로켓 발사원점 추방의 가자지구 주민에게 인근 인도주의적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49 vs 46...해리스, 트럼프에 근소한 우위”

NYT, 여론조사...7곳은 초접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투표의향층 유권자 3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의 지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2.4%포인트(p)이다.

앞서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 2~4일 미국 성인 1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0%p)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8%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불과 2%p 차이로 앞섰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에 3%p 차로 우위를 지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여전히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실질적으로 대선 승부를 결정할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조사보다 한층 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NYT와 시에나대의 지난 9월 11~16일 2437명의 투표 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0%p)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47%로 같았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30
	한국어교육학과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사범	유아교육과	8
	예능 (음악학 전공 / 심용음악학 전공)	21
총계		84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www.kwangshin.ac.kr